

메시지 5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성경: 골 3:15-17, 4:2-3

I.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 골 3:12-15, 엡 2:14-18, 롬 5:1, 마 18:21-35.

A. '판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판정하는 화평이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해결한다 — 골 3:13.

B. 종종 우리는 우리 속에 세 편, 곧 긍정적인 편과 부정적인 편과 중립적인 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1.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여러 편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에 지위를 주고, 새사람의 하나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최종 단안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2.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 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C.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1.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생활은 달콤함 속에 보존되고 새사람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2.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 비교 사 9:6-7.

3. 우리가 보좌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4.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 주고, 그들을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한다 — 엡 4:3.

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 골 3:16-17.

A.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하나와 조화가 가득한 상황 안에 지켜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곧 그분의 신탁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된다 — 골 3:15-16, 계 2:1, 7.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를 요구하신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소시키고 완전히 멈추게까지 한다 — 레 1:1.

2.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5.

3.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가져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고 온 존재를 적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

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 119:130, 비교 계 21:23, 22:5.

- B.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골 3:16.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시 119:105, 130), 우리를 양육하며(마 4:4, 딤후 4:6), 우리를 적시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사 55:8-11).
 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요일 2:14하, 잠 4:20-22), 찢고(엡 5:26), 건축한다(행 20:32).
 3.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요 17:17)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딤후 3:15-17) 함양한다.
- C.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사람, 곧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사람이 될 수 있다 — 골 3:17-25, 빌 4:5-8.

III.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 골 4:2-3.

- A.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골 1:12, 2:6-7, 4:2.
1. 우리는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하고,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 눅 8:13, 마 14:22-23, 6:6.
 2.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하루의 이른 시간에 그분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 충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우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 없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 잠 4:18, 출 33:11상, 34:3-4, 막 1:35.
 3. 우리가 기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이다 — 히 4:16, 비교 계 22:1.
- B.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 단 6:10.
1.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로써 우리는 타락한 우주 전체가 우리를 대적하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기도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 — 마 26:41.
 2.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조류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 눅 18:1-8.
- C.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단 6:10, 행 12:5, 12.
- D.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한다 — 엡 6:18, 딤후 4:7, 딤후 1:7, 골 1:3, 9.
1.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 계속 주님과 친밀한 연결 안에 있어야 한다 — 살전 5:17, 마 26:41, 골 2:19.
 2. 우리는 가장 사소한 문제도 주님께 여쭙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써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비교 수 9:14, 빌 4:7-8.

- IV.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실제로 새사람이 되기 까지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하신다 — 골 3:15-17, 4:2-3, 3:10-11.